

치열한 현실인식 담은 작품집 '풍년'

시·소설·콩트집 등 주제별 모음 쏟아져... '남발' 지적도

정돈된 하나의 테마 아래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은 시·소설·콩트집이 부쩍 늘어나 독자들의 책읽기를 새롭게 이끌고 있다. 이러한 '주제별 선집'은 어지럽게 쏟아져 나온 작품들을 일관된 흐름으로 가지런히 추린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준다. 또 동일한 색채를 지녔던 높낮이가 서로 다른 작품을 한꺼번에 접하게 되는 독자들로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체험을 얻게 되는 셈이다.

'통일'서 '사랑·이별'까지 주제 다양

'시의 시대'로 불릴 만큼 풍성했던 80년대의 시인들이 여러 갈래로 정리한 선집은 시독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열게 한다. 대체로 이러한 시선집의 주제는 사회현실과 밀착, 문제의식을 분명한 것과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내건 유형이 주조를 이룬다. 전자의 경우, 역사적식을 바닥에 깔고, 80년대의 사회변화에 주목하면서 여러 작품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의 꼭지점으로 흡입하게 된다.

'초록으로 부상하고 단풍으로 남하하는'이라는 감성적 테마로 하나된 겨레에 대한 열망을 읊은 신작시모음 「우리들의 꿈」(푸른숲)은 우선 기획이 신선하여 눈길을 끈다. '젊은 북녘 시인'에게 보내는 '남녘 땅 젊은 시인' 82명의 소담한 이야기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 한결 이채롭다.

통일에 대한 염원은 곧 분단이라는 모순의 굴레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를 주제로 엮은 선집도 꽤 여럿 나와 있다. 해방 이후 80년대까지의 통일과 분단문제를 시로 형상화한 것을 엄선한 시리즈 「그대는 북에서 나는 남에서」 「통일은 진정 그 어느 때에」(김규동·고은 엮음, 눈출판사)는 비교적 날카롭게 분단현실의 질곡을 보여주는 시선집. 「눈물섞인 노래」로 통일을 호소한 洪命熹의 시를 비롯,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분단의 구조적 모순을 주시한 김남주의 작품 등을 시대별로 묶었다.

'청사'에서 기획한 「금수강산 오랑캐꽃」(김명수·이재무 편)은 민족통일을 가로막는 '허위적 금기'로서 휴전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시들을 묶고 있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근의 어느 산자락'의 황량함을 그려 휴전선의 상처를 쓰다듬은 채광석의 「집터」를 비롯, 90여편의 시가 실렸다.

좀더 첨예한 이슈를 포착한 경우로, 5월광주

항쟁시선집 「누가 그대 큰이름 지우라」(문병란·이영진 엮음, 인동)는 80년대 운동의 출발점인 '5월'을 시적 체험으로 이끈다. '반외세 민족자주화시선집'으로 엮은 「아메리카 똥바다」(임현영·이영진 엮음, 인동) 역시 외세에 의한 민족모순을 일깨우는 시들을 담았다. 실천문학사가 내놓은 「내 무거운 책가방」

특정 테마 아래 여러 작가의 작품을 모은 시·소설·콩트집이 부쩍 늘고 있다. 이같은 기획은 문학의 주제의식을 더욱 선명히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나, 무리하게 작품을 모음으로써 주제를 남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은 '학교교육'에 시각을 고정시켜 사회의 모순을 하나하나 밝힌 교육시선집. 학생, 학부모, 전현직교사를 포함한 43명이 참교육의 방향을 여러 몸짓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강하게 밀착된 주제들이 능동적인 독자들의 의식을 붙잡고 있는데 비해, 현실 너머의 보편적 인간감정을 주제로 한 시선집도 또다른 독자층의 시선을 끈다. 일선기획이 펴낸 '어머니시모음'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절대적인 어머니사랑의 애뜻함을 노래한 70명의 시를 모았고, 예하의 「이땅의 어머니를 위하여」 역시 어머니에게 바치는 시인 61명의 현사와 함께 시인들의 어머니 사진을 실어 주제의 특색을 짚게 했다.

정음사의 '러브포임즈' 시리즈 가운데 사랑과 이별을 노래한 외국시들을 모은 「사랑의 시」 「이별노래」는 주로 학생층을 겨냥, 장정도 산뜻하게 꾸며 선보이고 있다. 인의출판사의 「仁義시선」은 사랑, 고향, 통일, 추억, 자유, 고독 등을 각각 주제로 하여 6권을 잇따라 엮어냈다. 좀더 구체적인 소재인 '결혼'과 '태교'에 관한 시모음도 나왔는데(창지사), 시낭송을 전화서비스해주고 있다. 약간 독특한 주제로서 철학적 의미의 '깨달음'을 노래한 선지자들의 시모음 「영혼의 피리소리」(류시화 엮음, 정신세계사)가 나와 사색의 時空을 넓혀 주기도 한다.

소설의 경우, 구체적인 줄거리가 전개된다는 점에서 더욱 현실의 '안'을 파고든 성격이 두드



러진다. 사회의 쟁점을 여러 흐름에 따라 가려 모은 선집형태는 약 20여종.

「우리시대의 소설」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정음사에서는 80년대를 되돌아보며 삶과 현실의 관계를 천착한 소설들을 몇가지 주제로 나누는 가운데 우선 3권을 선보였다. 분단문제를 다룬 「망원동일기」(임우기 엮음)와 도시민·중산층의 삶과 의식을 담은 「가위 가위 가위」(권오룡·진형준·성민엽 엮음), 그리고 광주항쟁과 운동권학생의 문제를 포함하는 「깃발」(백진기 엮음)이 그것. 정음사는 계속해서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의 삶, 분단문제에 관한 작품집을 준비중이다.

80년대의 모순들을 정면에서 맞닥뜨렸던 작품들을 골라 시리즈로 내고 있는 시인사의 「민주화항쟁소설집」도 같은 유형. 그 첫째권으로 낸 「동트는 새벽」(조태일, 황석영 엮음)에는 87년 사회격동의 흐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9편의 작품이 담겨 있다. 이어서 노동운동, 이데올로기, 4·19혁명, 소설과 혁명을 다룬 작품집도 마련중이다. 해방전후기의 문학에 한정, 주제를 더욱 압축시킨 예도 있어서, 1920~30년대의 문학작품 가운데 노동자의 생활상과 정치적 각성을 담은 「식민지시대 노동소설선」(민족과문학, 하정일 엮음)은 한설야의 「과도기」 「씨름」, 김남천의 「공장신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식민지시대의 농촌생활과 농민들이야기를 다룬 「농민소설선」도 후속으로 기획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이후 한층 높아진 독자들의 사회인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획으로, 날카로운 시대적 쟁점을 붙잡은 소설선도 많이 등장했다. 80년 5월의 광주민주항쟁을 초점으로 한 「일어서는 땅」(인동), 제4·3항쟁을 재조명한 「4·3島유채꽃」(전예원), 미국을 비판적 시각에서 본 「反美소설선」(한겨레), 그리고 해방 이후 분단 40년의 질곡을 담은 「소설속에 갇힌 분단40년」(남녘) 등등을 이

동아리에 묶을 수 있다.

이처럼 준열한 역사의식을 예각적으로 형상화한 것과는 앵글을 달리하면서 사회 곳곳에 박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시도도 주목할 만하다. 교육문제를 매개로 한국사회 전체를 조망한 교육소설선 「누이를 위하여」(실천문학사)는 최일남, 송기숙 등의 작품 15편을 통해 교육전반의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한편 '성장기소설선집'이라 이름붙인 「포플라잎사귀보다도 더 작은 사랑」(푸른숲)은 전상국, 박범진 등 작가 14명이 청소년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무리한 주제설정엔 자제 필요

농축된 언어로 우리삶의 전체적 모습을 풍자한 콩트집 역시 일관된 주제로 작품을 꿰어낸 형태가 잇따라 나왔다. 정치콩트를 시리즈로 내고 있는 동광출판사에서는 최근 제6권으로 사회비리콩트집 「큰도둑님 작은도둑님」을 펴냈는데, 5공화국의 비리와 정치권력의 함수관계를 풍자한 유순하, 오성찬 등 14명의 작품을 실었다.

5~10년 후의 시점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 미래형 시사풍자콩트 「보통공화국」(모음사)도 15명의 작품 속에서 미래를 빚어낸 현실을 비판한다. 오늘의 세대와 인간의 실체를 파헤친 「짧게, 즐겁게」(친우)는 사회고발을 주제로 5명의 작품을 엮었고, 근대생활의 민주화실상을 다룬 「졸병수칙2」(글사랑)는 금기시돼온 주제를 코믹하게 접근시켜 흥미를 끈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씨는 이같은 일련의 주제별 작품집은 "문학이 반영하는 주제의식을 선명히 보여주고, 특정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의 자료로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주제를 부각시킨 작품 자체가 부족한 편이니만큼 지나친 남발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결국 작품의 진정한 주제를 변별하는 역할은 독자 스스로 맡아야 할 부분이 아닐는지. —김지원 기자